

그리스도인의 지침서

교회 생활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

그리스도인의 지침서
교회생활

초판 1쇄 발행 2019년 3월 31일

초판 5쇄 발행 2020년 7월 29일

지은이 강경신
편집인 최 영
편집처 기장 목회와신학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5
전화 TEL. 02)365-6194 -5 FAX. 02)365-6196
www.http://www.theology.or.kr
E-mail : kisinyon@hanmail.net

발행처 도서출판 갯골
발행인 김환중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5길 12
전화 TEL. 02)2266-0284 FAX. 02)2266-8097
E-mail : samaad@hanmail.net
등록 제301-2016-186호(2016.5.8)

편집디자인 김수지

ISBN 979-11-87424-07-9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samaad@hanmail.net (비매품)

그리스도인의 지침서

교회 생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 ● 들어가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오면서도 정작 교회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핸드북은 성도님들의 교회생활에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교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기도, 헌금, 직분, 봉사, 친교, 교육, 전도, 선교, 교회성장의 10가지 항목을 단순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

필하였습니다. 포괄적인 신학적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적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쉬운 말로 쓰고자 했지만, 여전히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한 번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곁에 가까이 두고 몇 번이고 반복하여 숙독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이 성도님들의 교회생활에 보람과 활기를 더욱 북돋우며, 함께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장 목회와신학연구소

이사장 강 경 신 목사
(동부교회 담임)

CONTENTS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신명기 30장 20절)

•예배	08
•기도	13
•헌금	16
•직분	21
•봉사	26
•친교	30
•교육	34
•전도	38
•선교	40
•교회성장	44

예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 4:23)

1. 예배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1.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중심의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2.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는 말씀처럼,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영광의 의식입니다.

3.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헌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헌신 중에 가장 으뜸이며,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4.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최상의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특징은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런 일입니다. 예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섬김입니다.

5.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 세상만물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제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근본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6. 예배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잔치인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양식을 먹게 되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II, 어떻게 예배를 드려나 하나?

1.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2.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3.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4.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5.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6.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III. 예배자로서 지켜할 것은?

1.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2. 교회에 나올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예배 전에 미리 주보를 보고, 그 날의 성경과 찬송, 교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예배의 순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순서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찬송은 힘차게 부르며, 기도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설교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헌금은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7. 예배의 시작과 끝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8. 예배가 끝나면 뒷자리에 있는 성도들부터 질서 있게 천

기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 14:14)

1. 기도란?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 교통입니다.

1. 기도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2.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듯이, 기도 없는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 되고 맙니다.

3.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사귄이며 친밀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귄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히 나가도록 합니다.

9. 예배 후 식사와 차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에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0. 예배가 끝나고 교회당을 떠날 때까지 서로를 잘 배려하며, 특히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잘해야 합니다.

IV. 예배생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여 봅시다.

4.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열쇠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기도의 열쇠로 인생의 굳게 닫힌 문들을 열며,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II. 왜 기도해야 하나?

1.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2.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로 인해 닫혔던 영혼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됩니다.
4.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5. 우리가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III.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1.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 어린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3.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4.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대화하듯 기도해야 합니다.
5.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6.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7.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8.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9.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10.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IV.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헌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마 6:20)

I. 헌금이란?

예배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재물입니다.

1. 재물과 인간

재물과 인간의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재물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네 보물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 6:21)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재물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2. 재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

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과 은사를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3. 헌금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예배의 근본정신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헌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헌신의 표시이요 실천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에 응답하는 바른 헌신이며,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의 헌신입니다.

4. 헌금은 교회의 복음사역을 위한 귀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헌금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갑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교회의 모든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II.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1.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구체적인 표시입니다.

3. 믿음의 훈련과 영적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영적 훈련을 하게 됩니다.

4.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기꺼이 돕고, 가진 것을 나누며 베풀어야 합니다.

5.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선교의 사

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III.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나?

1.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2.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3.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시로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4.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드려야 합니다.
5.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IV. 헌금의 종류는?

- 십 일 조: 헌금의 기본으로 수입의 십분의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 주정헌금: 매주일 일정한 액수를 정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 감사헌금: 일상생활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 절기헌금: 교회의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 선교헌금: 국내외 선교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드리는 헌금입니다.
- 장학헌금: 교회가 선별한 장학생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 건축헌금: 교회의 필요한 건물을 짓기 위해 드리는 헌금입니다.
- 특별헌금: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특별히 드리는 헌금입니다.

V. 헌금생활의 축복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여 봅시다.

직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2)

I. 직분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섬김의 직무입니다.

1.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적인 지위와 다릅니다. 직분의 구별은 있지만 높고 낮음의 차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분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교회는 직분을 통하여 사역을 분담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설립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의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이는 교회가 복음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조직이

필요하며,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 사역을 분담함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런 직분이므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직분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II. 왜 직분자를 세우나?

직분자는 교회의 일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일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여기서 사도바울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분명한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1.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자는 교회의 일꾼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2.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겨야 합니다.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게 되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직분자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명’입니다.

III. 직분자의 자세는?

1.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직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단순히 때가 되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3.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기를 사모하며 기뻐하여야 합니다.

4. 교회의 일을 ‘나의 일을 하듯이’ 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또한 직분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5. 모든 직분은 ‘청지기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그 어떤 직분도 주인이신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IV. 직분자의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봉 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

I. 봉사란?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일을 몸소 행하는 것입니다.

1. 봉사는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가 아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봉사는 필수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2. 봉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교회는 봉사함으로써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증명합니다.

3. 봉사는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단순히 말과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과 온 몸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4.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봉사는 자신의 의지와 뜻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참된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우리남으로 해야 합니다.

5.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듯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II. 어떻게 봉사하나?

1.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해야 합니다.

봉사는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가 서로에게 다툼과 원망이 되어 버립니다.

2.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힘을 앞세워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3.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겨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4.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참된 봉사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큰 일에는 더 큰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도 감사하지만, 마칠 때에 더욱 풍성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5.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봉사는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는 능력자가 되기보다는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6.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III. 봉사의 유익은?

1.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됩니다.
2. 믿음이 더욱 성장합니다.
3.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4. 성도 간의 교제가 훨씬 깊어집니다.
5. 교회생활이 보람있고 활기차게 됩니다.

IV. 봉사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친 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3)

I. 친교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귀입니다.

1. 교회는 기관과 단체가 아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성도간의
사귀가 필수적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몸의 혈관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고
전 12:27). 몸은 피가 통해야 사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 간
의 친교가 활발해야 생기와 활력을 가집니다.

3. 친교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단순히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
리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는 누구든지 기꺼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4. 친교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친교는 단순히 말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어려움을 함께 나
눔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갈 6:2)입니다.

5. 친교는 하나님의 가족 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엡 2:19)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은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임을 구체적으로 느낄 뿐
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족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6.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성령의 사귀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가장 큰 폐단은 인간적이

고 세속적인 친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인간적인 친분관계를 넘어 성령으로 이루는 거룩한 사귄입니다.

7. 친교는 하나 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친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II. 어떤 자세로 해야 하나?

1.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2. 칭찬과 격려를 잘해야 합니다.
3.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4.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 친할수록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6. 가까울수록 말과 행동에 절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7. 끼리끼리의 편협한 사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성도의 교제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III. 친교의 유익은?

1. 교회생활이 즐거워집니다.
2. 교회의 소속감을 갖게 합니다.
3. 성도 간에 소통이 활발해지며 관계가 깊어집니다.
4.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의식과 일체감을 갖게 됩니다.
5. 신앙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6. 마음의 상처와 내면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7.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8.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IV. 친교의 기쁨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봅시다.

교육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3)

I. 교육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1. 주님의 분부를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말씀하시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고는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참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하나

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참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3.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교회교육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를 본받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4.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일입니다.

II. 교육의 목표는?

1.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 인간을 회복하게 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바르고, 선하고, 온전한 사

람으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4.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합니다.
5.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합니다.
6. 복음의 일꾼 되게 하는 것입니다
7.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8. 지·정·의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9.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일치를 이루는 통전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10.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초월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11.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12. 사랑과 공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살롬’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III. 교육의 방향은?

1.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가 모든 지식과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2.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위체론적인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3. 지, 정, 의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인 영성을 갖게 해야 합니다.
4. 세상과 사회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5.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6.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의 성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IV. 실천적 과제는?

1. 교회는 반드시 교육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2. 교육위원회는 교회교육의 방향과 원칙 등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3. 교회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교육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4. 교회의 교육목표는 교회내 모든 교육기관의 목표와 항상 연결되어야 합니다.
5. 교회는 유능한 교사를 발굴하고, 훈련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6. 교회는 좋은 교육시설과 교육적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V. 교회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전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

I.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1.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여 따르는 일입니다.
3.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4.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
이게 하는 것입니다.
6.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7.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의 사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8.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
니다.
9.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II. 전도하기 위해서는?

1.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 전도는 ‘남이 아닌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3. 전도는 본질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4.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5. 자신이 직접 전도의 대상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III. 전도자의 자세는?

1.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2.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3. 교회의 일꾼으로서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4. 영적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5.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6.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7.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8.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9. 섬김의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IV. 전도의 경험과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선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I. 선교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1. 전도와 선교

일반적으로 전도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선교는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요,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단순한 이해입니다. 오히려, 전도는 영혼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선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2. 하나님의 선교

- 1) 선교는 교회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지상목표입니다.
- 2)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 3) 교회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 4) 선교는 단순한 영혼구원의 차원을 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 5) 선교의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세계와 자연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 6) 선교의 목표는 죄와 죽음의 권세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해방과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살롬’입니다.

II. 선교를 위한 자세는?

1.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그리

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선교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는 사도 바울의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활동이 그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3. '그리스도의 섬김'을 철저히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몸소 실천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며,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교훈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그대로 본받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III.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1.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일정한 기간 동안 선교훈련을 위한 기도모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3. 개인이나 혹은 몇몇 사람들의 준비가 아닌, 교회의 전체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4. 교회가 종합적인 선교방향과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5. 교회가 선교를 위한 재정수립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6. 교회가 인적자원의 확보와 선교지도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7.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선교에 관심을 갖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8.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분부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삼위일체론적인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9. 선교지에 대한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선교적 돌봄이 뒤따라야 합니다.
10.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IV. 선교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교회성장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I. 교회성장이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1. 교회성장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성장을 단순히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성장은 복음의 확산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2. 교회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을 이루는 일입니다.

교회성장은 단순히 교인수를 늘리거나 교회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3. 교회성장은 전도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초대교회의 성장은 전도와 함께 이

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전도에 무관심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성장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4. 교회성장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연관됩니다.

교회성장은 외부적으로는 지역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내부적으로 그 교회가 지니고 있는 영적인 풍토(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태도와 신앙과 직결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열망과 확신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II. 교회성장의 세 가지 차원은?

1.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음의 헌신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 1) 예배, 말씀, 기도,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자라야 합니다.
- 2) 교회의 다양한 교육과 모임, 교회봉사와 성도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에 대한 헌신'이 자라야 합니다.
- 3) 전도와 지역봉사, 구제 및 선교를 통한 '세상에 대한 헌신'이 자라야 합니다.

2.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의 목표는 단순히 교인수의 증가가 아닌,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전도는 숫자를 늘려서 교회의 외형적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 성도들이 힘을 내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게 됩니다.

3. 교회는 구조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은 시스템이 없이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직분과 조직,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평신도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에서부터 구성원의 조직까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질적 성장 - 양적 성장 - 구조적 성장'의 통전적인 구조로 연결되는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III.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 1)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집니다.
- 2) 눈에 보이는 세상현실을 넘어 영원한 세계와 생명을 사모하는 초월적인 신앙을 가집니다.
- 3) 교회는 친목단체나 사회봉사기관이 아닌 거룩한 공동체임을 성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함께 공유합니다.
- 4)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 5)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요 구주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2.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 1) 성도들이 서로에게 깊은 관심과 사귀를 가집니다.
- 2) 교회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활기가 있습니다.

목회와신학연구소를 후원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월 1만 원 이상 후원하시는 교회나 개인들에게는 ‘교회생활 해설집’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경건서적들을 매년 2권 이상 보내드립니다.

• 문의: 목회와신학연구소 사무실. 02-365-6194, 6195

Fax. 02-365-6196

강승구 목사 (편집부장) 010-2816-0550

• 홈페이지: <http://www.theology.or.kr>

• ‘교회생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나 교회는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수량만큼 성심껏 보내드립니다.

이사장 강경신 목사
소장 최영목사

- 3) 성도들 간에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는 정성과 사랑이 활발합니다.
- 4) 성도들이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열심히 봉사합니다.

3. 세상과의 관계에서

- 1)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집니다.
- 2) 지역에 대한 관심이 남다릅니다.
- 3)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 4)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이 강합니다.
- 5)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집니다.

IV. 교회성장에 관한 각자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목회와신학연구소 후원 안내

후원계좌

우체국 010033-01-002445

국민은행 011-01-0377-852

(예금주: 기장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5 TEL. 02) 365-6194 -5 FAX. 02) 365-6196